

올림픽 개최 불투명... 선수들 ‘답답·초조’

선수촌 청정지역 유지 노력... 코로나19 원천 봉쇄
신촌장 “선수들 스트레스 많지만 독려하고 있다”

“주말이면 크로스컨트리 코스가 있는 산으로 다들 모입니다. 워낙 답답하니까요.”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의 수장인 신치용 선수촌장이 17일 전한 선수촌의 현재 분위기다.

신치용 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각 종목 지도자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간담회를 주재했다.

신 촌장은 “최근 선수촌 인근 충북 음성군 대소면, 진천혁신도시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나왔다”며 “확진자와 동선만 겹쳐도 감염 우려가 큰 만큼 선수와 지도자들이 선수촌에서 가까운 광혜원 읍내로 외출하는 것을 이번 주말이라도 전면 금지하거나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8일은 진천 선수촌이 코로나19

확산 통제를 시작한 지 50일째 되는 날이다. 대한체육회와 진천선수촌은 설 연휴를 즐기고 선수들과 지도자가 선수촌으로 돌아온 1월 28일부터 선수촌 입구에 열감지기와 손 세정제 등을 비치하고 코로나19 유입을 원천 봉쇄했다.

다행히 16일까지 선수촌에서 감염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외출 또는 외박을 하더라도 다시 선수촌에 들어오는 절차가 까다롭기에 선수나 지도자들은 웬만하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선수촌에서만 생활한다. 갈 데가 없으니 주말이면 이심전심으로 산에 올라 답답한 속내를 푼다.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도쿄올림픽의 앞날이 불투명해진 것도 선수와 지도자들의 맥을 빠지게 한다.



진천선수촌 관계자가 입구에서 통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 촌장은 “도쿄올림픽이 취소나 연기나 하는 마당이라 선수나 지도자들이 많이 답답해한다”며 “목표가 흔들리니 훈련 집중도도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7월 도쿄올림픽 개막에 맞춰 4년간 최고의 영광인 올림픽만을 준비해 온 선수와 지도자들은 올림픽 취소나 연

기 소식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도쿄올림픽을 선수와 지도자 인생의 마지막 무대로 삼은 이들일수록 도쿄 올림픽 소식에 귀를 세운다.

신 촌장은 “선수과 지도자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하지만, 도쿄올림픽이 결정될 때까지 앞만 보고 가자며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MLB ‘반토막’ 81경기 초유의 시즌 되나

CDC 권고 받아 리그 연기
5월 말 개막하면 105경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올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는 파행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MLB 사무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8주 동안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을 자제하라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를 받아 들어 17일(한국시간) 적절한 시점으로 정규리그 개막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MLB 정규리그는 일러야 8주 후인 5월 중순에나 개막한다. 예정대로 팀당 162경기씩 치르는 건 불가능하다.

시범경기마저 중단된 상황이라 각 팀은 정규리그를 대비하려면 2~4주간 추가 스프링캠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MLB 사무국이 이를 수용하면 개막 시점은 5월 말이나 6월 초로 넘어갈 수도 있다. 사실상 5월까지 MLB는 개점휴업 상태다.

미국 언론은 시즌 축소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과연 올해 각 팀이 몇 경기나 치를 지에 관심을 쏜다.

CBS 스포츠에 따르면, 5월 말 전 물장병주요일 주간에 정규리그가 막을 올리면 대부분의 팀은 시즌 말까지 105경기를 소화한다.

6월 초로 넘어가면 95~100경기만 치르고 포스트시즌으로 직행한다. 예년보다 60경기 이상 덜 치르는 셈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40년 만에 열리는 올스타전의 앞날도 불투명하다. 올스타전은 7월 15일에 열기로 했다.

시카고 컵스 관련 소식을 전하는 컵스 인사이더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최약에는 162경기의 절반인 81경기만 치르는 방안도 나왔다고 전했다.

MLB 사무국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일정을 새로 구성할 계획이다.

MLB가 파업이나 전쟁이 아닌 감염병 때문에 시즌 경기 수를 축소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MLB는 1994년 메이저리그 파업의 여파로 144경기만 치른 1995년 이래 25년 만에 경기 수를 줄인다.

연합뉴스

제54회 제주도민체육대회 잠정 연기 결정

코로나19로 어렵다 판단

오는 5월 15~17일 개최 예정이던 ‘제54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잠정 연기된다.

제주도체육회는 지난 11일 도체육회관에서 유관기관, 단체 등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가 심각 단

계로 격상된 이후 공공체육시설 이용이 중단되고 개학이 연기되면서 체전 준비 부족 등으로 예정대로 대회를 여는 게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주도체육회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의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양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며 “이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 대회 일정을 재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기자

K리그 선수와 함께하는 랜선운동 크루 모집

코로나19 여파로 프로축구 개막도 연기된 가운데 K리그 선수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7일 “K리그 선수들과 함께하는 랜선운동 크루”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K리그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선수와 팬들이 소통하며 힘을 합쳐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K리그를 대표하는 수원 김민우, 대구 정태욱, 부산 이동준, 울산 이동경과 미용개원 스포설게스트가 홈트레이닝 영상을 제작해 국민들의 운동 참여를 돕는다. 총 5개의 영상이 20일 단위로 한 번씩 공개되며, 참가자들은 선수들이 소개하는 홈트레이닝 방법을 100일간 실천하게 된다.

참가비는 만원이며 프로젝트를 달성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소외계층 지원 등에 쓰인다.

연합뉴스

류현진, 캐나다 ‘외국인 입국 금지’로 난감

미국에 꼼짝없이 발 묶여
더니든서 개인훈련 지속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왼손 투수 류현진(33)의 상황이 난처해졌다.

류현진은 캐나다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처 발표에 따라 팀 스프링캠프 훈련장인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든 TD 볼파크에서 기약 없이 개인 훈련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캐나다 정부는 1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시민권자와 직계 가족, 미국 국민, 외교관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다. 류현진도 마찬가지다. 그는 올 시즌을 앞두고 캐나다 토론토를 연고로 하는 토론토 구단으로 이적했는데, 캐나다 당국의 발표로 당분간 홈구장을 밟지 못하게 됐다.

캐나다 당국의 조처로 류현진은 스프링캠프 훈련장인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든에 꼼짝없이 발이 묶였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문제로 선수들에겐 자택 귀



가를 권유하면서 연고지나 스프링캠프 훈련장에서는 개인 훈련만 하도록 권고했다. 토론토의 일부 선수들은 자택으로 귀가하거나 연고지인 토론토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류현진은 선택지가 없다. 캐나다는 들어갈 수 없고, 귀국도 힘든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 문제에 따라 미국 재입국이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류현진은 좋은 삶든 더니든에 남아 개인 훈련을 이어가야 한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6: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꽃길만 걸어요(재) 9:40 무한리뷰 샐러드 10:40 지구촌 뉴스 11:00 포레스트(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나쁜 사랑 8:3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더 게임:0시를 향하여(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아침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맛 좀 보실래요 9:10 총은아침 10:10 SBS 뉴스 10:30 심맞 나눈 오늘 11:00 애니갤러리 11:30 애니메이션 런닝맨2 11:45 헬로카봇 유니버스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덩땅덩 뚱이원 9:15 마사와 곰 10:00 투집 부모투각 14:5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5:10 로보가 폴리 15:55 얼마 깨우리 16:40 덩땅덩 친구들 18: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 20:00 머털도사 21:50 EBS 다큐포리인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고고씹 13:50 KBS 재난방송센터(재)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5:00 숨터(재) 15:10 공사장미특집 1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10 제21대 총선 정강정책연설 - 더불어민주당 17:30 동물의 왕국	12:10 포레스트(재) 13: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재) 15: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5:10 자동차부채상 위기 2 15:30 TV 유치원 16:00 무한리뷰 샐러드(재) 17:00 시노스톤 프리임 17:30 강력추천 배틀 트림	12:00 12 MBC 뉴스 12:20 벅스붓 스페셜 12: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13:20 꾸러기 식사교실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나쁜 사랑(재) 16:0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7:00 5 MBC 뉴스 17:25 앙코르 제주여성 선각인물 - 최정숙	12:10 SBS 12 뉴스 12:20 JIBS 뉴스 12:50 트루신이 땀(재) 14:00 뉴스리빙 16:00 행복실제 일짜배기 17:00 SBS 오뉴스 17:45 JIBS 뉴스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덕기의 아침뉴스 7:30 김현정의 뉴스쇼 9:05 그대창가에 이한철입니다 12:00 CBS낮종합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15 시사저기 정관용입니다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현경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40 특별생방송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20:30 꽃길만 걸어요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생로병사의 비밀 22:55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3:00 더 라이브 23:40 숨터 23:45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우아한 모녀 20:30 글로벌24 20:55 살림하는 남자들 1부 21:30 살림하는 남자들 2부 22:00 포레스트 22:35 포레스트 23:10 도올학당 수다승철	18:25 생방송 오늘 저녁 19:30 MBC 뉴스데스크 20:55 그 남자의 기억법 21:30 그 남자의 기억법 22:05 실화탐사대 1부 22:35 실화탐사대 2부 23:05 라디오스타	18:00 백종원의골목식당(재) 19:00 대한민국 구석구석 19:30 행복추진 해피타임 20:0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본격연예 한밤 1부 21:30 본격연예 한밤 2부 22:00 트루신이 땀 2부 22:40 트루신이 땀 2부 23:10 백종원의 골목식당 1부 23:50 백종원의 골목식당 2부	KCTV 8:00 탐사 프로젝트 제주 물 8:30 대한민국 구석구석 9:00 KCTV 뉴스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3:00 KCTV 다큐 스페셜 13:10 탐사 프로젝트 제주 물 15:10 글로벌 아카데미 16:10 KCTV 다큐 스페셜 18:00 탐사 프로젝트 제주 물 20:00 글로벌 아카데미 21:00 KCTV 종합뉴스 22:30 대한민국 구석구석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 KBS ☎ 064-740-7331 / ☎ MBC ☎ 064-740-2432 / ☎ JIBS ☎ 064-740-7800 / ☎ KCTV ☎ 064-741-7723 / ☎ 제주CBS ☎ 064-748-7400				

오늘의 운세 18일		김종상 지단(組田)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곡원 교수(010-5233-6136)	
	36년 시간이 나를 기다려 주지 않으니 주변에서 해법을 찾아보라. 48년 능률이 오르고 이익이 따르니 자신감을 갖고 뛰어들라. 60년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타인의 일에 간섭은 금물. 72년 동업 제의의 정중한 거절도 필요하며 자격준비하여 독립사업 길. 84년 직장, 취업의 소식을 접하고 시원함이 생긴다.		42년 아이디어로 승부하거나 기획력을 인정받는다. 54년 급전이 필요하거나 자금이 필요한 날. 구설수나 안전사고 주의. 66년 목적하는 것이 있으면 노력해 실력을 인정 받으려 한다. 78년 자기위사를 명쾌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용기라 한다. 90년 의욕이 증가하고 활력이 넘치며 분주하다.
	37년 책임이 무겁지만 원활히 해결하고 직감력과 노하우로 부러움을 얻기도 한다. 49년 결혼 또는 집안간 상견례 등으로 바쁘거나 소개 중매가 성사된다. 61년 본인이나 자녀 중 경사가 있고 축하 받을 일이 있다. 73년 하루가 순탄하고 활동이 분주한 날. 85년 명예를 회복하려고 고민하게 된다.		43년 답답하던 일이 풀리거나 거래성사가 있다. 금전이나 매매건이 성사된다. 55년 계획을 세우고 창업을 하고 싶어한다. 신규사업 희망 있다. 67년 한가지 일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 것. 79년 몸이 늦게까지 분주하고 할 일이 많다. 91년 일이 있으면 몸이 사방으로 분주하다.
	38년 잘 알지 못하면 참견하는 것을 삼가라. 망신수가 보인다. 50년 아랫사람의 말도 나에게겐 중요하니 경청함이 좋다. 62년 약속에 어긋나고 추진업무에 문제가 발생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74년 유혹 당하지는 마라 지출이 생긴다. 86년 좋은 조건이나 유리함이 있다고 성급함보다는 신중함이 이익이다.		44년 자영업은 지속적 발전이 있고 직장인은 연봉에 신경, 조심해야. 56년 남의 일에 간섭 시 구설 또는 내가 마무리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68년 예전 같지가 않다. 주변에 도움을 청하면 해소된다. 80년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하는 법. 변동은 자제하고 신중해야. 92년 답답하게 안풀리던 일이 다소 해소된다.
	39년 농·수산업은 새벽부터 바쁜 일과 계약전이 있다. 51년 청탁 또는 뇌물을 받으려 즉시 구설수에 오르거나 신변에 이상이 생긴다. 63년 자녀에 대한 경사가 막혔던 일이 해소된다. 취업자는 직장승진도 온다. 75년 답답하면 휴식과 안정을. 재충전이 필요하다. 87년 재물이나 이성문제도 고민을 하게 된다.		45년 나를 속사시키고 있는 형국이니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를 가져라. 57년 문서변화나 하던 일을 변화를 주려고 한다. 69년 갈등과 번민이 많다. 가정에선 금전적 문제. 미혼자는 부모와 마찰이 온다. 81년 가정에서는 마음이 불편하고 밖에선 기쁨이 증가한다. 93년 약속이 중도에 해지되니 일찍 출발하는 것이 좋다.
	40년 직접투자로 사업장을 갖고자 한다. 창업 가능. 52년 인품이 높을수록 언어에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 64년 오를 현실이 어려워도 내일을 준비하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 76년 대인관계가 원만하니 이를 적극 활용하라. 88년 학생은 봉사활동 또는 불우이웃을 돕는다.		46년 현재의 일이 힘들다고 변동하는 것보다는 자중함이 좋다. 58년 하는 일에 준비가 필요하니 주변정리가 우선 시 돼야 한다. 70년 애인 또는 친구와의 갈등이 오면 관용이 필요하다. 82년 애정에 희소식이 오기도 하고 선악도 생긴다. 94년 신용 약속 또는 돈과 관계된 일로 시비가 발생하니 조심해야 한다.
	41년 귀인의 도움으로 건강이 회복되고 일에 능률이 오른다. 53년 일이 증가되고 몸이 분주하다. 음주할 시 절제가 필요하다. 65년 생각이 많거나 안전부절할 수 있으니 침착한 생각이 결단을 바르게 한다. 77년 외출이나 여행 등 활동력이 많아진다. 문안 안부 전화. 89년 호기심과 충동성이 강한 날. 지출이 따른다.		47년 찬스가 오면 포착하라. 애정문제가 다가온다. 59년 방해자가 생기니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경계하라. 71년 경쟁자가 많아 나를 바쁘게 하는 형국으로 노력한 만큼 결과가 없다. 83년 미혼자는 소개, 중매가 생기고 기혼자는 집안일에 분주하다. 95년 작은 아득이 있고 좋은 소식도 들린다.